

규제영향분석서

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
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

금융위원회

【분석대상 규제의 개요】
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1000080641		
	규제사무명	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 보고 및 지정취소		
2. 구분	등록변경사유	신설	등록단위	
	성격별분류	행정적규제	유형/구분	보고의무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제안부처	금융위원회
	담당부서	자본시장과	처리기관	중앙행정기관(본부)
	작성자 인적사항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: 김동현		
4. 근거법령명 등	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, 제12조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
	피규제자	금투협회	1개	입법예고
		증권사	56개	입법예고
	이해관계자	금투협회	1개	입법예고
		증권사	56개	입법예고
6. 규제존속기한	- 존속기한 : 2018.12.31.			
7. 종전규제 및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- 신설(강화)규제내용			
	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시, 6개월마다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 보고 의무화</div> 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허위 보고하는 경우,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한 경우 그리고 금융투자업 관련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가능</div>			
8. 규제체계도	<div>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의 상위법령 위임 없음</div> <div>* 금융투자회사들의 기존 사업에 특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, 현재 금융투자회사들이 활발히 영위하고 있지 않은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(자본시장법시행령 §68②에 따른 인수업무, M&A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, 프로젝트금융업무 등)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지침으로서, 별도의 법률유보는 필요하지 않음</div>			

【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】

1. 규제의 필요성

가. 현황 및 문제점

- ☐ 중소·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, 증권사들의 역할이 미흡하여 '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' 지정 필요성이 대두됨
 - *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92%가 은행대출에 의존, 자본시장 비중은 1%수준
- 기업금융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대형 IB들은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며,
-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자금력과 업무범위 등의 한계로 충분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

나. 정부 개입의 필요성

- ☐ 중소·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현재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기업금융 기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, 정부가 개입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고 중소·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적극 지원할 필요
- 현재 기업들의 다양한 파이낸싱 수요를 증권사가 흡수하지 못해 대출 위주의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, 증권사의 업무영역 특화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도 부진한 상황

다. 규제의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

- 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경우 6개월마다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허위보고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,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적극적인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, 실적 없이 인센티브 혜택만 누리는 등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

2. 대안의 분석

가. 고려된 대안

〈 현행 유지안 : 현행 규제 없음 〉

- ☐ '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' 도입 과정에서 신설되는 규제이므로 현행 규제는 없음

〈 비규제대안 : 기업금융 실적 우수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〉

- 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 중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 실적이 우수한 상위 1~2개 회사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

〈 규제대안 1 :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및 지정취소 〉

- 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중소·벤처 기업 관련 기업금융 실적을 금융위원회에 보고
- 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허위보고한 경우, 그 실적이 2회 연속하여 극히 미미한 경우, 그리고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제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사유에 해당

나. 대안의 분석

〈 민간의 자율성 · 창의성 〉

- ☐ '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및 지정취소'는 기업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사후점검 성격의 규제이므로 자율규제 또는 시장유인적 규제만으로는 지정회사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려움
 - 실제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가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을 도외시 하는 경우에는, 오히려 소수의 금융투자회사에만 부당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
- ☐ 동 규제는 사업 등의 업무범위를 제한(일부만 허용)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포지티브/네거티브 방식 검토 대상이 아님
- ☐ 성취해야 할 목표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관점에서 의무를 정의하는 성과기준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음

〈 해외사례 분석 〉

- ☐ 미국은 IB업무 중 M&A 자문업무에 대해 라이선스 제도(등록제)*를 도입하여 브로커-딜러(금융투자회사)에 한해 업무영위를 허용하되, 최저자본금 요건을 낮게(6백만원) 설정(Rule 15c3-1(a)(2)(vi))
 - * 한국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경영업무로 규정(별도 등록 및 인가 불요)
 - 전문성이 없는 플레이어의 진입을 억제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, M&A 업무에 특화된 증권사 등을 육성*하기 위한 취지
 - * 예시: 미국 evercore는 '96년 IB업무만 영위하는 M&A 전문 소형 증권사로 출범하여, 이후 업무 범위 확장 등을 통해 유망한 중소형 증권사로 성장

〈 이해관계자 협의 〉

- ☐ 「금융투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」('15.10.13.) 발표 후속조치로 '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제도' 도입을 위해 「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(안)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및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

<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☐ 해당 사항 없음(신설 규제)

< 비규제 대안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>

☐ 기업금융 실적이 우수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비규제 대안은,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 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기 어려움

< 결론 >

☐ 기본적인 통제 수단 없이 중기특화 증권사에 인센티브만을 부여할 경우 해당 회사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, 비규제대안의 경우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

○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기업금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한 후 이에 부수하여 사후 실적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'규제대안1'이 최소한의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인 것으로 판단됨

3. 대안 분석의 종합결론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가격기준연도	현재가치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(년)	할인율(%)	단위
2015	2016	2	5.5	백만원, 현재가치
규제대안 1.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및 지정취소				
영향집단		비용*	편익	순비용
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직접	0.77		0.77
	간접			
피규제 일반국민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				
정부				
총 합계		0.77		0.77
기업순비용		0.77	연간균등순비용	0.39
정성적 분석		<input type="checkbox"/> (규제편익)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중소·벤처기업 기업금융 실적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보고나 실적미미 등의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소·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,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·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		

* 직접비용 계산식 = 0.4백만원(1년차 비용의 현재가치) + 0.37백만원(2년차 비용의 현재가치)

① 1년차 비용의 현재가치 = 1년차 비용

= 1명(추가투입인력) × 40,000원(시간당 근로임금) × 1시간(1일당 근로시간) × 2일(1인당 연간 투입일수)
× 5개사(피규제자 수) = 400,000원

② 2년차 비용의 현재가치

= 2년차 비용(400,000원) / 1.055 = 379,147원

* 직접비용 산정 근거

① 추가투입인력: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 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해 1명의 인력 필요

② 시간당 근로임금: 국내 10대 증권사 평균연봉(출처: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.fss.or.kr)을 산술평균한 후 하루 8시간, 월 20영업일씩 근무(야근 없음)했다는 가정 하에 시간당 임금을 산출

③ 1일당 근로시간

- 중소기업 기업금융실적 항목(지정자문인 실적, 중소벤처 IPO 및 유상증자 실적, 중소벤처 채권 인수 실적, 중소벤처 M&A자문 실적, 증권 장외중개거래 실적, 중기벤처 직접투자 및 출자금액, 펀드운용실적 등) 상당수가 금융투자회사가 자본시장법 제3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기별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항목과 중복됨

- 실질적으로 새로이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지정자문인과 증권 장외중개거래 실적으로,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을 통해 쉽게 파악이 가능하여 수 분 내에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④ 1인당 연간 투입일수(2일): 6개월마다 보고의무 발생

⑤ 피규제자 수: 최초 지정의 경우 5개사 내외 선정 계획

<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 · 편익분석 결과표 >

가격 기준연도		현재가치 기준연도		분석대상기간(년)		할인율(%)		단위			
2015		2016		2		5.5		백만원, 현재가치			
규제대안 1.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및 지정취소											
* 피규제 기업 · 소상공인											
구분		제목		금액		구분		제목		금액	
정량	직접 비용	(금융투자회사)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 작성		0.77		직접 편익					
		총		0.77			총		0		
	간접 비용					간접 편익					
		총		0			총		0		
			총 비용		0.77				총 편익		0
구분		제목		내용							
정성	간접 비용										
	간접 편익										
* 피규제 일반국민											
구분		제목		금액		구분		제목		금액	
정량	비용					편익					
		총 비용		0			총 편익		0		
구분		제목		내용							
정성	비용										
	편익										

* 피규제자 이외 기업 · 소상공인						
구분		제목	금액	구분	제목	금액
정량	비용			편익		
		총 비용	0		총 편익	0
구분		제목	내용			
정성	비용					
	편익					
*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						
구분		제목	금액	구분	제목	금액
정량	비용			편익		
		총 비용	0		총 편익	0
구분		제목	내용			
정성	비용					
	편익					
* 정부						
구분		제목	금액	구분	제목	금액
정량	비용			편익		
		총 비용	0		총 편익	0
구분		제목	내용			
정성	비용					
	편익					

나.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

< 행정적 · 재정적 집행 가능성 >

☐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허위 여부, 금융투자업 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사전 · 사후적인 확인이 가능하므로 행정적 · 재정적 집행 능력에는 문제 없음

< 기술적 집행 가능성 >

☐ 금융감독원은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바,

○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2~3년 주기의 종합검사 및 그 외 필요에 따른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보고내용의 허위 여부 및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현재 수준에서 특별한 기술적 보완을 필요로 하지 않음

<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>

☐ 해당 사항 없음

다. 분야별 규제영향평가

〈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〉

☐ 해당 사항 없음

〈 경쟁영향평가 〉

☐ 해당 사항 없음

〈 기술규제 영향평가 〉

☐ 해당 사항 없음

라. 대안 선택 및 근거

- 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될 경우 매 6개월마다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을 제출해야 하나, 이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,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인 것으로 판단됨
- ☐ 허위보고나 금융투자업 관련법령 위반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운영의 신뢰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의 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없음

마.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

- 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회사들이 중소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,
 -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귀책사유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투명성·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
4.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

☐ 입법예고('15.12.15.~'16.1.4.) 결과 동 규제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 없음